

이창한 / 5월 / 기초 GS / 8회								응시인원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535258	22	14.5	0	0	36.5	1	0.66%	152
540162	22	14.5	0	0	36.5	1	0.66%	
541302	22	14.5	0	0	36.5	1	0.66%	
541272	22	14	0	0	36	4	2.63%	
541288	21.5	14.5	0	0	36	4	2.63%	
535161	22	13.5	0	0	35.5	6	3.95%	
535244	22	13.5	0	0	35.5	6	3.95%	
535994	22	13.5	0	0	35.5	6	3.95%	
540135	22	13.5	0	0	35.5	6	3.95%	
540137	22	13.5	0	0	35.5	6	3.95%	
540161	22	13.5	0	0	35.5	6	3.95%	
541270	21.5	14	0	0	35.5	6	3.95%	
541279	22	13.5	0	0	35.5	6	3.95%	
541296	21.5	14	0	0	35.5	6	3.95%	
541384	21.5	14	0	0	35.5	6	3.95%	
541404	22	13.5	0	0	35.5	6	3.95%	
541680	22	13.5	0	0	35.5	6	3.95%	
535217	22	13	0	0	35	18	11.84%	
535316	20.5	14.5	0	0	35	18	11.84%	
535412	21.5	13.5	0	0	35	18	11.84%	
540291	21.5	13.5	0	0	35	18	11.84%	
541266	21.5	13.5	0	0	35	18	11.84%	
541268	21.5	13.5	0	0	35	18	11.84%	
541416	22	13	0	0	35	18	11.84%	
542763	22	13	0	0	35	18	11.84%	
540147	21	13.5	0	0	34.5	26	17.11%	
540167	21	13.5	0	0	34.5	26	17.11%	
540193	21	13.5	0	0	34.5	26	17.11%	
541261	21	13.5	0	0	34.5	26	17.11%	
541271	21	13.5	0	0	34.5	26	17.11%	
541295	22	12.5	0	0	34.5	26	17.11%	
541299	21	13.5	0	0	34.5	26	17.11%	
541355	21	13.5	0	0	34.5	26	17.11%	
541390	21	13.5	0	0	34.5	26	17.11%	
541718	21	13.5	0	0	34.5	26	17.11%	
541785	21	13.5	0	0	34.5	26	17.11%	
541913	21	13.5	0	0	34.5	26	17.11%	
542764	21	13.5	0	0	34.5	26	17.11%	
535319	21	13	0	0	34	39	25.66%	
535321	21.5	12.5	0	0	34	39	25.66%	
535335	21	13	0	0	34	39	25.66%	
538192	21	13	0	0	34	39	25.66%	
540164	21	13	0	0	34	39	25.66%	
541269	20.5	13.5	0	0	34	39	25.66%	
541281	20	14	0	0	34	39	25.66%	
541284	21	13	0	0	34	39	25.66%	
541380	21.5	12.5	0	0	34	39	25.66%	
541767	21	13	0	0	34	39	25.66%	
542476	21	13	0	0	34	39	25.66%	
535461	21	13	0	0	34	39	25.66%	
541774	21.5	12.5	0	0	34	39	25.66%	
541928	20.5	13.5	0	0	34	39	25.66%	
542543	21	13	0	0	34	39	25.66%	
535239	22	11.5	0	0	33.5	54	35.53%	

535310	21.5	12	0	0	33.5	54	35.53%
541265	21	12.5	0	0	33.5	54	35.53%
541282	20	13.5	0	0	33.5	54	35.53%
541283	21	12.5	0	0	33.5	54	35.53%
541374	20	13.5	0	0	33.5	54	35.53%
541722	21.5	12	0	0	33.5	54	35.53%
540141	19	14	0	0	33	61	40.13%
540146	19.5	13.5	0	0	33	61	40.13%
540150	21	12	0	0	33	61	40.13%
540153	20.5	12.5	0	0	33	61	40.13%
540217	19.5	13.5	0	0	33	61	40.13%
541278	19.5	13.5	0	0	33	61	40.13%
541290	18.5	14.5	0	0	33	61	40.13%
541368	19.5	13.5	0	0	33	61	40.13%
541370	19.5	13.5	0	0	33	61	40.13%
541377	19.5	13.5	0	0	33	61	40.13%
541408	22	11	0	0	33	61	40.13%
541414	20.5	12.5	0	0	33	61	40.13%
541745	21	12	0	0	33	61	40.13%
541762	21.5	11.5	0	0	33	61	40.13%
540177	20.5	12	0	0	32.5	75	49.34%
540208	20	12.5	0	0	32.5	75	49.34%
540325	22	10.5	0	0	32.5	75	49.34%
541273	19.5	13	0	0	32.5	75	49.34%
541276	19.5	13	0	0	32.5	75	49.34%
535617	18.5	13.5	0	0	32	80	52.63%
540136	20.5	11.5	0	0	32	80	52.63%
540173	19	13	0	0	32	80	52.63%
541285	18.5	13.5	0	0	32	80	52.63%
542138	20.5	11.5	0	0	32	80	52.63%
542402	20	12	0	0	32	80	52.63%
542422	19.5	12.5	0	0	32	80	52.63%
535211	17	14.5	0	0	31.5	87	57.24%
540149	20	11.5	0	0	31.5	87	57.24%
540163	19.5	12	0	0	31.5	87	57.24%
540289	19.5	12	0	0	31.5	87	57.24%
541274	19	12.5	0	0	31.5	87	57.24%
541388	18	13.5	0	0	31.5	87	57.24%
535325	18	13	0	0	31	93	61.18%
541294	22	9	0	0	31	93	61.18%
541847	17	14	0	0	31	93	61.18%
535331	18	13	0	0	31	93	61.18%
535470	22	9	0	0	31	93	61.18%
535255	18.5	12	0	0	30.5	98	64.47%
540133	17	13.5	0	0	30.5	98	64.47%
541301	17	13.5	0	0	30.5	98	64.47%
541303	17.5	13	0	0	30.5	98	64.47%
541376	18	12.5	0	0	30.5	98	64.47%
543021	18.5	12	0	0	30.5	98	64.47%
541864	17	13.5	0	0	30.5	98	64.47%
541893	16.5	14	0	0	30.5	98	64.47%
542803	21.5	9	0	0	30.5	98	64.47%
541381	18	12	0	0	30	107	70.39%
541415	17.5	12.5	0	0	30	107	70.39%
541262	17	12.5	0	0	29.5	109	71.71%
541904	16	13.5	0	0	29.5	109	71.71%
542211	18	11.5	0	0	29.5	109	71.71%

542679	18	11.5	0	0	29.5	109	71.71%
535329	17	12	0	0	29	113	74.34%
541264	16	13	0	0	29	113	74.34%
541275	21	8	0	0	29	113	74.34%
541365	17.5	11	0	0	28.5	116	76.32%
541395	17.5	11	0	0	28.5	116	76.32%
542130	18.5	10	0	0	28.5	116	76.32%
542428	20	8.5	0	0	28.5	116	76.32%
542701	16.5	11.5	0	0	28	120	78.95%
542288	16	12	0	0	28	120	78.95%
540201	20.5	7	0	0	27.5	122	80.26%
541393	14	13.5	0	0	27.5	122	80.26%
545348	20.5	7	0	0	27.5	122	80.26%
540156	16.5	10.5	0	0	27	125	82.24%
542547	17.5	9.5	0	0	27	125	82.24%
535247	15.5	11	0	0	26.5	127	83.55%
541263	17	9.5	0	0	26.5	127	83.55%
541372	13.5	12	0	0	25.5	129	84.87%
541641	16.5	8	0	0	24.5	130	85.53%
540225	20.5	3.5	0	0	24	131	86.18%
542469	21.5	2.5	0	0	24	131	86.18%
541800	16	8	0	0	24	131	86.18%
542431	16	8	0	0	24	131	86.18%
540172	22	1.5	0	0	23.5	135	88.82%
540301	22	1.5	0	0	23.5	135	88.82%
535327	16.5	6.5	0	0	23	137	90.13%
541735	16.5	6	0	0	22.5	138	90.79%
535647	13	9	0	0	22	139	91.45%
540145	16.5	5.5	0	0	22	139	91.45%
541277	22	0	0	0	22	139	91.45%
541286	13.5	7.5	0	0	21	142	93.42%
541300	12	9	0	0	21	142	93.42%
540175	10	10.5	0	0	20.5	144	94.74%
535333	13	6.5	0	0	19.5	145	95.39%
541367	16.5	1.5	0	0	18	146	96.05%
541298	9	8.5	0	0	17.5	147	96.71%
542205	8.5	8.5	0	0	17	148	97.37%
540190	15.5	0	0	0	15.5	149	98.03%
542665	15	0.5	0	0	15.5	149	98.03%
541292	7.5	6	0	0	13.5	151	99.34%
540227	8	4.5	0	0	12.5	152	100.00%

[문제 1] 22

I. 서문(1)-가. 1.5

1. 2점점자리 및 상소불가불원칙 의의

상급심 법원이 당사자 한쪽이 불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판단하려면 해당 부분도 상급심 법원에 이심되어야 한다. 상소 불가불원칙은 상급심 불복심사청 범위에 관계없이 원판결 권위에 대해 불가불으로 이심판하는 것이다. 상소불가불원칙에 따라 이심판 주위적 청구가 상판대상이 되는지 문제된다.

1.5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 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다. (제415조 문)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를 항소심이 재판 가능하리 정돈한다.

3. 판례 1.5

예비적 청구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이심의 효력은 사건 전체에 미치지 않고 원판결부터 불복항소가 없는 한 항소심 심판대상이 예비적 청구에 국한된다고 하며 예비적 청구만 가속한다.

4. 핵심 3

(1) 통설

판례처럼 항소심 상판대상이 예비적 청구에 국한되어 주위적



특허 판단할 수 있고, 원고가 1성 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으므로
주위적 특허에 대한 판단을 면하게 안게되는 이사로 보다

(2) 소수성

원래 부대항을 인정하고

원래 이사를 합리적인 해석에 주위적 특허의 상판대상의 해
인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두 특허 모두 가독해 판결이
보존될 수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한다

특5. 검토

원고가 불복하지 않으 주위적 특허를 인용하면 피고의 항소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통상 판례가 타당하다

6. 사안해결 - 항소인용 및 예비적 특허 가독 판결

주위적 특허의 항소성 상판대상 아니므로, 1성 판결 취지하여

안고 그대로 두고, 피고의 항소 인용하여 예비적 특허

가독해야 한다 주위적 특허와 예비적 특허가 결과적으로

모두 가독되는 만큼 발생하나 이는 무독이한 것이므로

①. 서문(1)-나. 3. 5

1. 재정경제리 및 청구인식 의미

인식을 변질시킨 또는 준변질임에 피고의 오해 이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범용성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상소불가능 원칙에 의해
확립하고 있어 주위적 청구도 소 상소심에 이송되지만, ~~주위~~이 때
주위적 청구가 상판대상이 되어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2. 판례 1. 5

주위적 청구를 가지는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한다, 항소에 대한 이상 판결 사건 전부에 미치는
주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송되므로, 피고 상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식하여 가제되면 주위적 상판대상과 동일한 범위 있다

3. 해석 . 5

① 주위적 청구가 이송된 본질적 상판대상 아니지만 관련성
상판대상 되면 인식이 가능하다는 전제

② 본질적 상판대상 관련 인식가능 인식 불가능하는 전제 있다

4. 결론 . 5

인식을 판정이 선고되었는데 판정 확정된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통칙이다.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 확정되지 않은 상소심에 이송
되어 있는 이상 인식 가능하다는 것이 ~~판~~ 타당하다.

7. 사안 해결 - 인색한 사람

법률상의 인색을 유습한 것이라 보아 인색한 사람을 작성해야
 한다. 인색한 사람은 한평생의 고난을 겪어온 (제 220조)
 예비적 ~~수단~~ 수단은 주위에서 수감 인물의 해체로 인하여 상해를
 구한 것이라서 상환 편은 없다 사건 정정한다 ~~정정한다~~

IV. 結果(2)

1. 246246246

학생들의 피로감과 관련하여 2이 증가한 부분도 다뤄서도

① 방향수이력이 있더라도, 일단이면 ~~그대로~~ 깎아내야 하긴 ② 불이익

반경 공기 원식에 비하여 같은 양의 하중을 주었을 때 훨씬 양의 하중이

다만 이 점에서 2의 최극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런 상제행복권의 특성을 살펴본다.

2.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 상충이익 교환관계 2

(1) $\frac{b^2}{a^2} \leq \frac{c^2}{a^2}$

① 농·산·수산물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과 판로확장을 위한 경우

상호이익, 행복, 전염병, 상, 유행병

② 신원적 불복검토 결과 양과제적 사실관계는 유죄판 확정

위하여 생각했습니다.

2) μ_{HCl}

남성인에게 불이익한 것인데 여학생 제편의 주장을 펴고있

남아 열정적인 남아 벼룩시장 방문 임박하다.

37 검토

사건관련 변호사들은 2건의 불법촬영 관련 형량에 너무 낮은

남자성 보충제 때문인데, 페미라와도 기미라와도 인공에 불과한데

북극해는 매우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다.

(2) 전속승인된 피고가 상한할 수 있는 경우 - 상제항변 인정된 경우

예비적 상제항변 인정되어 전속승인된 피고의 청구권은 부속권을
이후로 승계한 것보다 적절적으로 복의익하고, 상제항변 판단에
기판력 발생하므로 (제 216조 2항), 상한이 있다.

(3) 서문서정 경우 판례는 L J

서문서정 원성이 무효 정무원인 사실은 모두 인정된 뒤 피고
상제항변 받아들여 장장 청구부분만 일부 인용한 경우에도
상제항변 받아들여진 부분에 관해 상한 가능하다고 하여
그에게 항한이익 인정된다.

3. 2의 조해배상 채권에 대해 부정 가능 여부 (소극)

(1) 복의익변정공무원인사 이의

제 1항 판결은 복의익 한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제 4항
조 법률) 복의익상 범위를 넘어 원상회복을 복의익하게
변경 불한다.

(2) 복의익변정공무원인사 판정기준 ! J

1) 원상회복 - 판정기준 비교

원상회복 '판정기준'과 상공성 '판정기준' 형식적 비교하여 판단한다

2) 예시 - 상제항변

상제항변 판단은 판결 효력에 기판력 발생하므로 (제 216조 2항)
상공성이 '판정기준'에서 상제항변 내용 복의익하게 변경
안 된다.

(3) 상계(상행)의 복이익 발생 - 항소인에게 복이익한 변형 금지 2

1) 상계항변 인원은 1심판결에 대해 '원판한 항변한 자'가

원고 등과 소관 법원 안으로 이동하는 이유로 원고 ~~소송~~ 근접구

가각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복이익하게 판결 변경하는 것이다

이 상계항변 인원은 1심 판결에 대해 '판결' 안 항변한 자

항소심이 1심이 각항제권으로 인정하였던 것을 인정 안하고

그 원리에 관해 상계항변 변형한 자는, 판결에 복이익하게

1심 판결 변경한 것이다.

4. 상안해결 - 항소기각 판결

항소심 법원은 ~~원판한 항변한~~ 이 판결을 ~~상계항변한~~ 원판한 항변한 이

판결하리 안한다는 심증이 들었어도 각항제권이 부존재한

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해버린 것이고, 원상판결이 부당하

더라도 복이익변형금지 원칙상 원상판결과 이유를

같이 하여 항소기각 해야 한다

[결론]

[문제 2] 14.5

I. 재검정거리 1.5

X3의 신규취지 확장신청이 적법하리 살피야 하는데 ① 확장 신청이 신변정인지와 그 원인 구비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② 소취하한 부분에 대한 확장이므로 재신 공개원칙에 미치지 못하리 검토 문제된다 ③ 이 때 원인 X3로 전복당한 재신 항소이의이 있어 신규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 불가하므로 부대항소 가능하리 검토된다

II. ~~X3의~~ X3 부대항소 가능 여부 (적극) 3.51. 부대항소 원인 및 상황

피고가 항소하였으므로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항소에 의해 개시된 항소심 절차에 편승해 제기하게 될지 항소심 심판 항소 심판 확정 후 부대항소 가능하리 검토한다. (제 403조)
부대항소 항소심절차 개시된 것 아니므로 항소로 볼 수 없다

2. 부대항소 원인 및 상황

① 주된 항소 취지 계속 불 ② 주된 항소 취지 피항소인이 항소인 상태 ③ 항소심 변론 정지 전 제기 하고 ④ 부대항소와 계속해야 한다

3. 사안의 범위

특히 Y의 항목이 제기되었고, 피항자인 X가 Y를 상대로 항변장에서 하부 및 중간 모두 출구한다. 복대항고로 제출하고 있는 변방 신청서 제출해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편에서 복대항고만 출구 볼 수 있다.

II. 소변방 중간 출구 여부 (2주)

(~~특히~~ 소변방 제기 및 청구취지 불확 소변방 여부)

소변방 신청 즉 구청에 대한 신청으로 보거나 신청이 수리하는 것인데, 청구취지의 양적 불확에 대해 2주요인인 변방 없이 청구 변방 아니라는 점이다. 있으나 청구 취지 변방 있고 피청자에게 양적 불확으로 가능하고 있어 청구 변방으로 볼 수 있다.

2. 인정된 방식

청구취지 불확, 적성을 불리하게 인정하지 않고 시정형 행정청의 권한, 변방에 인정되므로 가능해야 한다. ~~특히~~ 청구 취지 변방 인정된다는 생각해야 한다. (제 26조)

3. 청구취지 불확에 이의

이의, ~~사실상~~ ^{사실상} 등이 있는데, 청구취지 불확한 경우는 2주요인 불확함에 청구 취지만 변방만 경우. ~~특히~~ 청구취지 불확함에 청구취지만 변방만 경우 등 청구 사실에 관한 불확이 있어 불확성명 하에 있는 경우이다.

4. 사안의 정서

X3의 청구항의 변경은 청구항인에서 ~~X2의~~ X2로 부터 야생
 반은 각을 취하는 청구항의 특정한 재료를 ~~특정~~ 청구
 기호의 특정성 인정되고, 적히면 사정 옳고, 기타 다른 양쪽
 하여 신변의 적당하다.

IV. 재산권 관련 지식의 여부 (각주)

1. 재산권 관련 지식의 범위, 내용, 내용 및 권리성

~~특정~~ 재산권 관련 지식의 범위, 내용, 내용 및 권리성
 지식 (제 26조 2항) 중 재산권 관련 지식의 범위는 지식의
 대상에 관한 지식, 권리관계의 지식, 권리관계의 지식
 한다. 지식은 지식의 범위, 내용, 내용 및 권리성
 X3의 지식은 특정 지식인 재료를 지식의 권리관계의 지식

2. 권리

재산권 관련 지식의 범위, 내용, 내용 및 권리성
 지식인 지식의 범위, 내용, 내용 및 권리성
이것 지식인 지식

3. 지식

(1) 특정 지식인 지식

특정 지식인 지식의 범위, 내용, 내용 및 권리성
 지식인 지식의 범위, 내용, 내용 및 권리성

이와 같이 사법권으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2) 특허청에 대한 불복항고

판결이 된 후 불복항고할 수 있는 것은 특허청에 특허를
사실상 없애는 처분공백을 한 이의이다

4. 검토

특허청에 대한 처분은 행정청이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청
이기 전에 법률 위에 따라 처분 행하여, 권력행위이므로
부패방지 처분 중이 아니다.

5. 사안처리 방법

행정청 처분은 처분 불합격에 대한 소변쟁이므로
행정청이 행정청인 것 아니며 X라는 자기 관리를 위해
행하는 것임에 따라 다른 사건에 해당하여 처분공백
원칙에 의해 안된다.

V. 사안해결 - 행정청의 변경 후 승인

비록 X가 전부 승인은 ~~판결~~ 사건이 아니므로 ~~X~~ X라는
행정청에 대한 불복항고는 ~~부패방지~~ 부패방지법으로 볼 수 ~~있고~~ 있고, ~~사법~~
문건 취급되므로, 처분공백 원칙에 의해 ~~안된다~~ 특별하다
~~부패~~ 부패방지법으로 사안처리 변경 받아주어야 한다

[O(비판의정)]

<문제 1> 22

I. 실문(1) -가. 7.5

1. 노점 정리. -상선불가분원칙과 복역병정리 원칙. 1.5

예비적 병합은 원고가 즉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기대함으로써 하여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는 형태이다. 1부의 청구는 권청 예비적 병합에 해당하는데, 2이 상선하였는 바 두 청구 모두 이심된다. 다만,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선만 항소하였는 바, 즉위청구가 실패대상이 되는지 상한다.

항소심의 실패대상은 복역한 부분에 한한다. (제415조 본문)

2. 판례 1.5

즉위적 청구를 외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건에서 "다만 예비적 청구에 대해 항소한 경우 두 청구 모두 항청이 취단되고, 이심되는데, 즉위적 청구는 실패대상이 될수 없다"고 본아 예비적 청구만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3. 해설. 3

(1) 통설.

① 판례와 마찬가지로 예비적 청구만 실패대상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즉위적 청구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해 실패 받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것을 논거로 한다.

(2) 소수설.

① 피고만 항소하였더라도 원고의 복역항소는 위제하여 즉위적

청구도 실패의상이 된다고 한다. ②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아직 있다는 실증이 들었는데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
판결이 오송될 수 있음을 든다고 한다.

4. 결론 1.5

항소판 피판 예비적 청구의 방어에 관한 원고의 잘못이므로, 항소판
을 의제하면 피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통상적 수/시
가 타당하다. 이때 판결이 오송될 수 있는 것은 아예 수
없는 것이다.

원고항소하리
알아 밝히는

5. 사실상물의 처분 1.5

대상이 유체하라고 실증이 들었는데, 예비적 청구는 아직 없다.
주위적 청구는 실패의상이 되어 있는 바, 피판의 항소는 인용
하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해야 한다.

2. 선문(2)-4. 3.5

1. 논설정리.

전술한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가 실패의상이 될 수 있는데,
피판이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 1.5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판 항소판 경위에도 두 청구



모든 사실이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즉위적 청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승을 종료한다.

3. 학설. 0.5

① 즉위적 청구가 항소심에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리한} ~~것~~ ^{강제적인} 실현가능성이 되므로, 피고가 즉위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와 맞다.

② 즉위적 청구는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즉위적 청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맞다.

4. 검토 0.5

통설은 인박의 경우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학설 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함으로써, 즉위적 청구가 ~~인정~~ ^{인정} 사실된 이상 즉위적 청구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5. 설문의 해결.

따라서 법원은 즉위적 청구를 인정한 인박 근사는 작성한 후 승을 종료시켜야 한다.

II. 설문(3) ||

1. 논점정리.

① 피고자 2이 일부승인하였는데, 상제항변으로 승판관 바 상선여의



있는지 ② 각종제도에 대해 구체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불이익행정처치 원칙에 반하는지 ③ 이에 대한 항소심 법률적 처리에 대해 살펴본다.

2. 고에게 상소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상소조건. - 상소이익의 의미

상소가 적법하려면, 이상적적: 행정기관·상소이익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설문에서 고이 상소이익이 인정되는지 본다. 상소이익은 불복을 승소한 자는 상소이익이 없다는 것인데, 불상소 항소를 위해, 양쪽 모두 인정되는 개념이다.

(2) 상소이익의 판단 기준. 2

1) 확실히. ① 형식적 불복설로, 재판의 주문을 문언으로 하여 권복승소한 자는 상소이익이 없다고 하는 견해와 ② 실질적 불복설로, 실제행상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상소이익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상소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재판의 효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보아 형식적 불복설의 입장이다.

3) 검토 실질적 불복설은 상소이익을 너무 넓게 인정하여 상소이익을 보장한다. 따라서 형식적 불복설이 타당하다.

(3) 상제항변에 의한 상소이익 판단. |

상제항변을 하여 승소한 자는 상소이익이 인정된다. 상제항변에 의한 판결은 가산적이 발생하고(제 26조 2항) 원고의 승소요건을

인정하지 않아 승인은 정당한 불이익이 아니다.

(4) 실문의 경우. 1.5

원래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여
상계 제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해 일부인용 판결을 한 경우에도
피고는 상계항변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없다.
따라서 2는 상대이익이 인정되고, 승인은 적법하다.

3. 2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 여부.

(1)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범위. 1 (45조)

항소심은 항소인에게 1심 판결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때 불리한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불리하다.

(2)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의 판단기준. 1.5

- ① 원칙적으로 상급심의 판결내용과 하급심의 판결내용은 형식
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한다.
- ② 다만,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은 기판력이 발생
하므로,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3) 상계항변과 불이익변정금지원칙. 2

1) 손해청구가 인정되었는데 원고만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손해청구와 상계항변은 모두 인정하였는데 원고만
항소한 사실에서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된 원래의 손해청구
를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하여서는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
고 판단하였다. 상계항변에 제정된 제한이 증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2) 상계항변에 ~~제정된~~ ~~각종규정이~~ 인정된 경우 비교한 항소했음 등.

원고의 승계항변을 인정하고 피의 상계항변에 ~~각종규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비교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심에서 인정한 각종규정의 존재를 부정하고 항소기각하거나, 원고의 승계항변을 인정하여 항소원문양점을 내려주는 안된다"고 명시하였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에는 기존법이 반영하기 때문이다. (제216조 2항)

4. 항소심 판결의 처리여하. - 심문 제정. |

무엇 항소나 복대항소를 제기 안왔든 바, 복이항변정송제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승계항변항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증이 들더라도, 1심 판결은 부적당하지만,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재판~~ 항소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끝]

<문제 2> 14.5

I. 독점권리. 1.5

- ① X3는 실에서 전부 승수한 것으로 항상이익이 없는 바, X3의 청구권지 변경이 복제항승로 가능한지 ② X3의 청구권지 변경이 청구의 변경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③ X3의 청구변경이 적법한 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살펴본다.

II. X3의 복제항승로 가능성 여부. 3.5

1. 복제항승의 의미.

복제항승란 항승인에 항승이 편승하여 1실보다 더 유리한 편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 403조)

이때 복제항승은 항승으로
하는 권리가 있으나 비특정
을 위해 항승이익은 없음으로
한 것이다

2. 복제항승의 요건 및 방식.

- ① 극된 항승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② 피항승인이 항승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며, ③ 항승원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하며, ④ 복제항승장은 제척하여야 한다.

3. 복제항승장을 제척하지 않는 경우 제척

복제항승장을 제척하지 않고, 청구권지확장장서를 제척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항승원에게 불리하게 되는 정도 내에서는 복제항승
장을 제척한 것으로 볼 것이다.

4. 사안.

X2는 Y항승 계속 중 항승원 변론종결 전에 X3가 Y를 상대로
청구권지변경장을 제척한 바, 복제항승장을 제척한 것이 유효



않고 명백히 모두 충족하였다.

II. X3의 청구항이 변형이 ~~소변형~~ 명백히 충족하였는지. 4

1. 청구의 변형의 의미

사안처럼 청구항을 확장한 경우 청구항이 동원하~~지~~ 않으므로, 소변형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으나, 미미의 변형된 본질과 유사한 것을 본질적으로 변형으로 보아야 한다. 이하 요건·방식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본다.

2. 청구의 변형의 요건 및 방식

① 기존 청구의 기원이 동원해야 하고, ② 절차를 지양하지 않은 것
③ 사실상 변형충분한 차이 가능하며 ④ 동종결과 공동관행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 262조 제253조). 또한 청구항의 변형은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 262조 2항)

3. 청구기원의 동원성의 의미

이익성, 사실성 등이 있으나, 「청구기원의 동원성」이라 함은 청구원이 동원함에 취지만 변형하는 경우, 취지는 동일하는데 원인만 변형하는 경우, 기원의 청구가 변형된 경우 등과 같이 "동일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분인 경우"를 말한다고 한 것이다.

4. 사안

사안은 청구항에만 변형하는 것으로 기원의 동원성이 인정되고, 출원 선술과 같은 원용한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지양하였다는

사정도 없고, 기타 요건·행사를 모두 충족한 바, 권리행사 행위를
~~취급제한~~ 특별승계인은 모두 만족했다. 다만 X2의 지분에
 여하 재산증거 원칙에 반해논리 본다.

IV. * X2에 여한 $\frac{1}{2}$ 지분이 재산증거 원칙에 반해논리여부. 5

1. 재산증거 원칙 의의, 효력.

본문에 여한 중구판결이 있은 후 신는 취하한 사실은 동일한
 신는 제기한 수 없다. (제267조 2항) 이는 법원의 조력이
 무용한 것이고, 중구판결이 법원 당사자에 의해 종국되는 것은 옳지
 않게 위함이다.

2. 재산증거 원칙의 요건.

①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② 동일한 수 제기 ③ 새로운 권리
 본인이권이 없은 것 ④ 본안판결 후 신하하야했을 것이다. 본
 사건에서 당사자 동일함에 관하여 논란이 없다.

3. 사법에서 재산증거 원칙 적용 여부. - 독점승계인 포함여부에 관하여

(1) 판례

최거창권을 구한 후 취하한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양수 받은
 독점승계인이 다시 최거창권을 구한 사건에서 "신는 취하한 사실
 예는 독점승계인을 포함하나, 토지소유권은 양수 받은 자는
 소유권을 양하하고 있는 자에게 다시 최거창권을 구한 새로운
권리본인이권이 있다"고 하여 독점승계인 포함설의 불합치

(2) 학설.

① 독점승계인으로 환설. 독점승계인도 당사와 동일 명칭을 만족하나, 신청서에 착상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관계가 있어 개승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독점승계인 불요환설 타인이 신청한 경우까지 독점승계인에게 이전된 더욱 가혹하므로, 독점승계인도 동일 당사와 명칭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

(3) 검토

기관적 승계인라 누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점승계인도 판정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점승계인은 새로운 권리관계가 있어 개승금지 원칙에 만하지 않는다.

4. ~~4.1~~ 승변

따라서 X3의 승변정은 개승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일반 승승명도 인정하여야 한다.

V. 실문의 해설 이 5

승변정의 명, 일반승승명은 모두 만족하였는 바,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확장된 청구항에 대해 심판하여야 한다.

-이하야바-

[문제-1] 22

I. 실문(1) - 가. 의 해결 7.5

1. 문제의 소재 1.5

상충성이 불분하기 많은 특허 판단 시, 그 특허도 상충성에 이르지 않아야 하는데 우선 상충불가불원칙이 위해 주위적 특허도 인정된다. 불이익변경정당성이 원칙이기에 특허 항소심은 항제 45조 본문에 「제1항의 판결은 불복 항소에서만 바꿀 수 있다」 하여 불복받지 않는 원심 판결은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때 불복 안한 주위적 특허는 인용하면 불이익 변경정당성이 위반되는 것인지 검토한다.

2. 판례 1.5

예비적 항제에 피대한 항소한 사건에서 이상의 요건은 사각조제에 어시터라도 원고의 부대항의가 있는 한 항소심 심판대상은 예비적 항제에 국한된다. 2판례는 판사에게 예비적 항제만 기각한다.

3. 해설 3

(1) 9수선

판례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항제에만 한정되며 원고가 주위적 항제에 불복하지 않은 것은 그에 대한 판단은 요청하지 않는다는 ~~이치~~이다.

(2) 2수선

예비적 병합한 원고의 이사는 항소심으로 해석해 부대항의는 인정하고 주위적으로 심판대상이거나 바 인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는 심판권을 그대로 두고 상충대로 예비적 항제만 기각하면 두 항제 모두 기각되기

판정이 모순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한다.

4. 검토의 사항 1.5

원고가 모독하지 않은 주위상항은 ~~가~~ 인용하면 피고의 방어책이
완벽되고, 주위상항도 그대로 두는 피고의 항소는 인용하여
예비적 청구는 적절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예비기 관해 주위상항에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되기 판정이 모순되지만 이는 부득이한 결과이다.

II. 결론(1) - 나의 해 3.5

1. 문제의 소재

심에서 피고의 ^{주위상} ~~주위상항~~에 대한 인용은 모독된 여러 ~~고~~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주위상 항소는 인용한 경우의 처분에 관해 검토한다.

2. 판례 1.5

주위상 항소는 기각하고 예비적 항소는 인용한 1심 판정이 대체
피고는 항소하여도 그 이상의 효력은 주위상 항소에도 미쳐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위상 항소는 인용해 3사가 기재되면
그로서는 항소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학설 0.5

(1) 다수설

주위상 항소가 이심되고, 현상적인 선행대상은 아니므로, 강제적 선행
대상이 되므로 위 인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2) 소수설

주위상 항소가 이심되므로 현상적인 선행대상이 되지 못하여 인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4. 검토

인색은 판권이 확장되기 전까지 가능한 바, 주위지 지가
확대되기 전에 이상되어 있는 이상 인색이 가능하진 않아 한다.

5. 심판의 해명

방식은 인색이 가능하므로 유출로 처리하여 인색서는 작성하여야
한다. 인색은 인정해결으로 주위지 지 인용은 해명되고 심판은
주한 예외지 지는 심판판 필요가 없는 사안이 종결된다

II. 심판(2)의 해명

1. 문제의 소재

항소심판원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이의가 있거나, 불이익변경승인원칙이 바뀌어 이 항소였으므로
항소심이 판결과유에서 이 해명을 부당한 수 있거나 검토한다.

2. 이 승소한 부분의 항소이의 인정 여부

(1) 항소이의 판단기준

1) 작성

① 항소지 불복심은 당사나 신청보다 판결주장이 불복한 때
전후승소가능 상소할 수 있다고 한다.

② 불복심지 불복심은 전후승소가능 신청방식 유지한 판결은 위해 상소할 수
있다고 한다.

2) 판결



상소인에게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재판장의 국문은 표준으로 판단하여
형식과 본질의 양립이라

3) 검토

심판과 본질은 상소변의기, 너무 넓은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형식과
본질은 다르며, 기판과 대문시 변제에 한수 있는 예는 인정해야 한다.

(2) 진부승소한 피고가 상소한 수 있는 경우. - 법 제 263 조항.

예비가 상제항변이 인제이 진부승소한 피고는 소제항변 부른게
이유로 승소한 것보다 불이익한^것 상제항변에 기판이 발생하므로
상소이익이 있다

(3) 상소의 경우

원심이 원고의 주장인사상 모두 인정하고 피고의 상제항변은 받아들여
상제항변 내의 원고의 주장부분은 인용한 경우도, 피고의 상제항변이
받아들여진 불이익한 부분만 존재해도 상소할 수 있다.

3. 1의 손해배상채권은 부당한 수 있는지 여부 - 불이익변경증거원칙

(1) 불이익 변경증거원칙의 의미 - 제 415 조 본문

항소 인용과 심판권 변경시 「제 1심 판결은 그 본복 관대시만 바뀐다
있다」 해에 원상회복 부담에도 그 본복 없기 있어 원상회복 불이익에 변경
할 수 없다 한다

(2) 불이익 변경증거원칙의 내용.

원칙 원상 회회 주결과 상소심 판결 주문 해석상의 비교에 판단한다.

예외 상제항변 도입으로 기판이 발생하므로(제 263 조항) 판결이유에서
그 상제항변 내용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3) 상계항변이나 불이익변조... 2

1) 상계항변 인용판 심판점이 원판과 항소판 동일.

원판의 소위항변의 반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항은 인정청구 기각하는 것은 항소판의 원판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옳다.

2) 상계항변 인용판 심판점이 피판과 항소판 동일.

항소심이 상계항변 판결과 같이 자동재판의 인용판 부분을 상계항변에 반대로 배정했다면, 항소판의 피판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옳다.

4. 심판의 해부

항소심은 '항소판 인용판 심판점 취지 이유' 하거나 '자동재판이 부당하게 항소기각' 해주는 안되고, 인용판점은 부당하지만 불이익하게 하지 않으므로 인용판결과 판결이유를 같이해서 항소기각해준다.

[문제-2] 14. J

I. 문제의 개요 1. J

X3의 특허청구항목이 과범판점도 확장심점이 변형점이 원판에 갖혔는지 검토하고, X2와 이미 소위항변 부분은 확장하는 것이므로 그 확장부분이 재검정심판에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원판 X3도 전무승소로 항소기각이 없이 특허청구항목은 위한 항소판 판사 없으므로 부대항소가 가능하지 우선 검토한다.

II. 전무승소한 X3의 항소심에서의 변형이 부대항소³ 가능 여부. 3. J

1. 부대항소의 의미 - 제 403조

피판 항소심에 피항소심이 항소판의 항소심에 개시된 항소심 원판에



편승해. 각선에게 유익한 항소심 심판방식 ~~확정~~ ~~부대항~~ 하는 것이
부대항소이다. 부대항소로 항소심판하게되면 것은 아니므로 항소는
아님.

2. 부대항소의 요건과 방식.

주심판소가 각방 계속해야 함, 피항소인이 항소인 상대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기되어야 하며 부대항소장은 제출해야 함.

3. 사안의 범위

X3는 2변쟁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2변쟁 상대는 제출해도
제1심에서 인용 승소한 원고 항소심 계속 중 하위리 확장 변쟁 가능한,
그것이 피에게 불거진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란 취지로 볼 수 있어
X3의 항소심에서 2변쟁 부대항소의 성립은 맞는다.

Ⅳ. 2변쟁 요건 충족 여부. 4

1. 2변쟁이 되는.

2승 중 주항 대신 선택으로 바꾸거나 선택이 추가되는 것이다.
사안과 같이 하위리 변쟁이 있는 피와 제기 안한 판결 받은 가능성이
있으면 하위리 변쟁이 된다.

2. 2변쟁의 요건과 방식 - 제 262조, 제 253조

하위리로의 증인성, 원판은 원심이 각양사귀지 않음, 사실성 변론 종결 후,
항소의 인정 여부(동등판결, 공동판결)를 갖추어야 한다. 항소지리 변쟁은
사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3. 항소지로 증인성의 예외

이와선, 사실성이 ^{논리}있다면, 항소지로 증인한 경우도 항소인이 항소심에

제거치니만 변경한 경우, 제거 목적도 동일함시 제거당선만 변경한 경우,
기존 제거의 변형물인 경우, 동일사안이나 문제가 이의 부분에서 그 해결
방법이 유사한 경우 등이다.

4. 사안의 경우

X3의 제거치니변경은 제거당선인시 해당인이 리본으로 추가하나
제거치기도 약량한 경우로 기존 동일사안 인정되고, 진정사건 사안이나
다른 진정사건 모든 방식을 모두 충족하여 소변경 소변경 소변경.

IV. 제거치니약량 부분의 대소형제원칙에 의거하여.

1. 대소형제원칙의 의미와 요건 - 제 269조 2항

「보안판권 등에 소취하한 사항은 같은 소 제이 못한다, ~~제이~~ 하에
충족한 능력방식에 제이가 있다. 그 요건은 진정 양사, 소중도이
등인, 제이보이이등인, 보안판권 등 소취하하야 한다. 그러나 변로충족
이보충제인은 대소 형제이는데, 사안지부 특정충제인 X3도 대소이
형제이는데 정호한다

2. 판례

소취한 양사한 특정충제인이 다시 진정충제이거로 사안에서 변로충제인이
특정충제인은 포함하사, 진정 취하 후 제이 양사한 양사 소취한 양사
제이게 그 배제 구반 세로 제이보이이이 있다대 대소 역시 양사.

3. 항선

(1) 특정충제인 포함

양사나 동일 모로 충족하사, 특정충제인시 세로 제이보이이이 양사
한다. 그래서 특정충제인의 대소도 역시 양사.

(2) 특허승계인 보호방안

타인의 소취하 효과까지 특허승계인이 받는 것 가능하냐. 재고판
가판과나 안기 법과 안감성 위반 것이 아니므로 약어의 경우 등 독언어 사용이
가능한 특허승계인에게는 재고판하 아니기 아니라고 한다.

4. 점오

독점성은 취해온 재고판하로 취해 반해 안고, 승계인으로 자신의
취해보느 위해 재고판 필요하고, 점오라 취해보이익을
안고해 재고판 승계 되리니 안고판 해야 한 것이다

5. 사안의 경우.

항소심 제국을 지분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고판 경우.
법원이 동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분양수인에게 소취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니며,
양수인으로 자신의 취해는 보충에 유해 양수리원이 기해 소취하한 필요
있고 점오라 취해보이익이 안고 재고판 원상세 지배되기 아니니

V. 4항 선물의 해지, J

전국 X3의 특허취득확장은 특허승계인과의 후대항으로 볼 수 있다.
소취하의 요건도 충족했다. 특허부보이 재고판인원까지 저촉되니 양으로
적법하게 취해해야 한다.

<끝>

이하의 배